

목포, 현역 이상열 탈락에

박지원 '기지개'

통합민주당의 공천에서 배제된 후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목포 선거사무소가 13일 아연 활기를 띄웠다.



의 시의원 가운데 70% 이상이 지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와 함께 박 전실장에 게 목포지역 유력 직능·사회단체들로부터 '행사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하면서, 하루 전만 해도 썰렁했던 후보의 행사일정이 오는 주말과 휴일까지 한 시도 쉴 틈 없이 '츄츄히' 짜였다.

시의원 지지선언 등 격려 잇따라

차 "당당하게 시민 심판 받겠다"

박 전 실장은 이날 오전 9시 선거사무소가 분주해지고 있다.

선거사무원들은 사무실에 삼삼오오 모여 "조직력이 가장 탄탄하고, 최근 일부 언론 여론조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던 경쟁 후보가 탈락한 만큼 앞으로 갈 길이 조금은 순탄해졌다"며 웃음꽃을 피웠다.

실제로 이날 오전에는 목포지역 시의원 5~6명이 지지선언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시의원 10명이 이미 지지선언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두 22명

열린 선거참모 회의에서 모처럼 웃음을 보이면서 "중앙 공천구도에 관계없이 우리는 처음처럼 시민을 상대로, 자만하지 않고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측근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끝까지 당당하게 시민들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이 우리 캠프의 목표"라며 "앞으로도 중앙당의 결정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차분히 선거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4·9 총선 현장

강운태 "장애인 고용 증대 노력하겠다"



○강운태 광주 남구 예비후보(무소속)는 13일 "장애인 우대 정책은 편견 없는 사회건설의 지름길"이라며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

강 후보는 이날 남구장애인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장애인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라고 밝히고 "국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채용 기업에 대한 국가 지원책을 강화하고 장애인 직업 교육의 내실화에 힘쓰는 등 고용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

장병완, 새 정부 '6%경제성장률' 비판



○장병완 통합민주당 광주 북구 갑 예비후보는 13일 광주시의회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정부의 6% 경제성장률과 감세정책과 관련, "재원조달방법이 불분명한 잠깐의 침식과 포퓰리즘의 극치"라고 비난.

장 후보는 이날 "올해 4%대 경제성장도 버거운 상황에서 6%대 성장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인위적 경기 부양을 위해 무리한 정책을 동원하는 것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 경제를 잠먹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

김동신 "여론조사 빙자 불법선거 근절해야"



○김동신 통합민주당 광주 북구 갑 예비후보는 13일 자동응답방식(ARS)의 전파 여론조사를 하는 척 하면서 특정 후보를 홍보하는 형태의 사전 선거운동, 경쟁 후보에 대한 흑색 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

김 후보는 "다른 후보를 흡입내는 흑색 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은 공명선거 및 정치발전의 바라는 지역민들의 열망을 짓밟는 것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유권자들의 눈과 판단을 흐리게 하는 구태정치를 즉각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기정 '청·한나라당이 색깔논쟁 조장'



○강기정 의원(광주 북구갑)은 13일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여정부 출신이거나 친노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퇴진을 요구한 것과 관련,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한 뿔모로 색깔논쟁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

강 의원은 이날 "한나라당의 주장은 최근 장관인선 및 공천 갈등으로 인한 지지를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한 술수"라며 "지난 정권 '코드 인사'들의 퇴진을 요구하기 전 문제가 된 청와대 수석과 장관들의 인사 철회가 먼저"라고 지적.

양형일 '동구 생활체육시설 건립' 공약



○양형일 의원(광주 동구)은 13일 동구생활체육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

양 의원은 "동호인들이 많은 배드민턴·테니스·축구를 비롯, 노년층 생활체육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게이트볼까지 생활체육을 즐기는 시민들은 많은데 시설은 열악하다"면서 "국회에서 생활체육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

지병문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최대한 지원'



○지병문 의원(광주 남구)은 13일 효덕동 스포츠댄스교실, 주월동 노래교실 등 남구주민센터 교실을 찾아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고 의견을 청취.

지 의원은 "주민자치센터가 지역 공동체로서의 자치 기능을 갖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지원을 당부.

김영록 "노인 편히 사는 농어촌 만들 것"



○김영록 통합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예비후보는 13일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방문, 노인보건과 복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표방같이에 분주.

김 후보는 경로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남도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노인들이 편히 살 수 있는 농·어촌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

유종필 "시청 앞 '녹색 숲터' 지원"



○유종필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 갑 예비후보는 13일 광주시청 앞 미관광장을 서구의 랜드마크로 개발하자고 제안.

유 후보는 이날 "2만㎡에 달하는 시청 앞 미관광장을 생태 숲으로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총사업비만 55억원에 이르러 광주시의 재정을 압박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회에 입성, 시청 앞 미관광장을 도시민들의 녹색 쉼터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

정기남 '직거래 장터 활성화 노력'



○정기남 통합민주당 광주 남구 예비후보는 13일 대촌동 하우스농가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정 후보는 농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해 농민에게는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 및 유통비 절감을 통한 수익 증대를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저가에 질 좋은 유기농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약속.

박주선, 경총 '기업 경쟁력 강화' 주제 강연



○박주선 통합민주당 광주 동구 예비후보는 14일 오전 7시 광주무등파크호텔에서 광주·전남경영자총합회의 초청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

박 후보는 이날 강연에서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선 규제개혁과 선진국 수준의 법인세 인하 등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공정거래법 개정과 함께 조세권의 적정행사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

오형근 "허위사실 유포 행위 심판 받을 것"



○오형근 통합민주당 광주 북구 갑 예비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래의 광주를 선도할 대표를 뽑는 이번 선거는 새로운 비전과 책임 있는 공약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

오 후보는 "자신의 공천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상대 후보 캠프의 선거운동을 유인하는 비정상적 선거운동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공심위와 지역민의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

김영룡 "불·탈법 자행 후보 사퇴하라"



○김영룡 통합민주당 광주 서구 을 예비후보는 13일 "최근 경쟁후보 측에서 휴대전화로 '여론조사 전화방기, 지인에 연락' 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등 불법선거가 자행되고 있다"고 성토.

김 후보는 "과거처럼 불법·탈법 선거에 유혹을 느끼는 후보가 있다면 이제라도 미련없이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며 "개혁공천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고 주문.

김승남 "첨단산단, 연구개발특구 지정돼야"



○김승남 통합민주당 광주 광산구 을 예비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광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려면 첨단산단이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돼야 한다"고 주장.

김 후보는 "국가차원에서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되어 있는 지식기반 경제의 견인차를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주로 확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

교수·변호사 623명 '임내현 지지'



○오재일 전남대 교수·이정희 변호사 등 623명은 13일 임내현 통합민주당 광주 북구를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

이들은 성명서를 내고 "임 후보는 26년동안 광주교감장·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내며 쌓은 풍부한 중앙인맥과 경험을 바탕으로 광주지역을 현안을 해결할 인물"이라며 지지 의사를 표명.

홍행기·김지희기자 redplane@kwangju.co.kr

강금실 결국 비례대표로 가닥



통합민주당 손학규 공동대표는 13일 강금실 최고위원의 총선 거취와 관련, 비례대표의원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손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 프로그램에 출연, "강 최고위원이 전국적인 유세지원에 (나설) 필요성이 있다. 지금로서는 어떤 한 지역에 묶여 있다기보다는 전국적으로 지원을 해나가는 시스템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면서 "강 최고위원 본인도 지금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략공천 문제에 대해 "당의 전략은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가 있다. 다면적, 포괄적,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뒤 "공천심사위에서 배제된 사람도 전략공천 대상이 될 수 있는냐는 질문에는 "일몰적, 획일적으로 배제 된다. 안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최고위원은 손 대표, 정동원 전 통일부장관의 서울 출마 확정과 함께 민주당의 수도권 바람몰이 카드도 심도있게 검토됐었다.

당의 이같은 검토에 따라 서울 중구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과의 맞대결도 관심을 끌었으나 무산되게 됐다.

강 최고위원은 "손 대표와 합의 비례대표로 등극한 후 전국을 돌며 지원 유세를 하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박지희기자 jkpark@kwangju.co.kr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후원회 광고 접수합니다

후원회 광고를 접수하는 국회의원 후보는 제13대 국회의원선거를 향하여 국회의원 예비후보 등록과 후원회 광고를 접수·제출합니다.

후원에 대해서는 후원회 공하는 차의 당에 후보자들에 공인하여 인사도를 높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062) 220-0526, 227-9500

광주일보 광고미케팅국

황산·장가계

가장 편리한 가장 공신력있는 MBC문화탐방의

2008년 4월 27일 ~ 5월 10일 (4박 5일) 1박 2일

2008년 4월 27일 ~ 5월 27일 (4박 5일) 1박 2일

<p>황산·장가계·장가계</p> <p>₩120,000 (4박 5일, 1박 2일)</p>	<p>황산·장가계·장가계</p> <p>₩120,000 (4박 5일, 1박 2일)</p>
<p>황산·장가계·장가계</p> <p>₩120,000 (4박 5일, 1박 2일)</p>	<p>황산·장가계·장가계</p> <p>₩120,000 (4박 5일, 1박 2일)</p>
<p>황산·장가계·장가계</p> <p>₩120,000 (4박 5일, 1박 2일)</p>	<p>황산·장가계·장가계</p> <p>₩120,000 (4박 5일, 1박 2일)</p>

항공 소요시간 1시간 30분

문의: 062-226-6070